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최

정부 및 관계기관은 6.8.(월) 15:00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경제부총리 주재,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참석)」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참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26.6.7일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일시 / 장소) '26.6.8일(월) 15: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시장과장, [재경부] 국제금융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외환감독국장,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
[시중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은행 담당 임원
[외은지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HSBC, SC은행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차익 실현 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중동 긴장 고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참석자들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 신인도는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더해,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 또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전달하면서, 은행권 자체적으로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와 관계기관은 시장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수 있는 상황인 만큼, 24시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215-4730)
		담당자	사무관 이태윤 (lty703@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용준 (kimyj1011@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오동헌 (donghun34@korea.kr)
			사무관 이경배 (groundback@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민규 (02-759-5737)
		담당자	과 장 배석진 (02-759-5752)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책임자	팀 장 광원섭 (02-3145-7922)
		담당자	수 석 이상훈 (02-3145-7923)